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2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제1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실시했다. 이날 이사장 일면 스님과 홍보대사들은 신내동 일대 취약계층 가구에 겨울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홍보대사 엄영수, 배아현이 물품 상차를 함께하고 있다.


신내1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고 있다.



가수 배아현과 팬클럽 '아트'는 환자 치료비 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생명나눔, 소외 이웃에 따뜻한 자비 나누다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11. 제12회 정나누기 현장

생명나눔실천본부, 12월 2일
서울 중랑구 일대서 '정나누기'
배우 수지 1500만원 후원으로
200가구에 김치 · 라면 등 지원
엄영수 · 배아현 홍보대사 동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 어르신, 맛있는 김치 잡수시고 따뜻하게 겨울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이었던 12월 2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서울 중랑구 신내1동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찾았다. 일면 스님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홍○○ 할머니에게 김장김치와 라면, 김 등 식료품과 전기매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매해 연말마다 지역 내 소외 이웃들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올해도 겨울 물품 지원에 나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2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제1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실시했다. 2014년부터 소외이웃을 위한 연말 자비나눔을 펼치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들을 보듬어 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연말도 어김없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지역사회 연대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지난해에 이어 중랑구청(구청장 류경기)과 협업, 중랑구 신내1동 지역에서 정나누기가 진행됐다. 2025년 6월, 중랑구의회와 체결한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2년째 이어 오고 있는 행사다.

이날 정나누기에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본 행사에 후원금을 기부해 온 가수 겸 배우 수지의 후원금 1500만원 덕분에 김치 2000kg, 라면 200박스, 김 세트, 전기매트, 방한용품 등을 준비할 수 있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류경기 중랑구청장,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장, 성명용 수석부회장 외 홍보위원들, 홍보대사 개그맨 엄영수와 가수 배아현, 박홍근 중랑구 을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장미경 씨 등이 함께해 신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200가구 곳곳에 겨울 물품을 전했다. 이들은 모두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로, 고령 및 장애로 이동이 어렵고 식료품 구입이나 김장김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인 개그맨 엄영수와 가수 배아현은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손을 잡고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 훈훈함을 더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배아현 홍보대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TV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자주 봤다"며 사인을 받고 기뻐하기도 했다.

배아현 홍보대사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이자 중랑구 홍보대사로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후원자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중랑구가 더욱더 따뜻해질 거라 믿는다. 앞으로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중랑구에서 자비나눔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은 중랑구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서 "중랑구 40만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중랑구청은 복지 향상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나눔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중랑구 홍보대사이기도 한 배아현 홍보대사에게도 "노래도 멋지고 마음씨도 따뜻한 중랑의 자랑"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눔과 복지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면 스님은 "올해도 많은 분들의 정성 덕분에 나눔의 씨앗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었다"며 "중랑구민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온정의 손길을 느끼고,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홍보대사 가수 배아현과 팬클럽 '아트'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소아암 및 희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치료비로 쓰여진다.



잠시 내려놓은 커피 한 잔
그 따뜻함을 하윤이에게 전해주세요

ARS 후원 060-703-1133
• 전 화 1 통 화 에 5 천 원 후 원 •

태어난지 두달 무렵
몸에 힘이 빠지고 움직이지 못해 병원을 찾은 하윤이는
근육이 점점 위축되어 대부분 두돌을 넘기지 못하는 희귀질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에
하윤이의 치료는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정기 CMS 후원 신청 02-734-8059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